전남도의회 "전남도립대 혁신안 실효성 없다"

전국 7개 도립대 중 재정지원 대학서 유일하게 탈락
"지자체에 손만 내밀어" 강도 높은 비판…추가 대책 요구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데다, 학내 구성원 간 분쟁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전남도립대가 내놓은 혁신 방안이 실효성은 별로 없고 여론에 떠밀린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제365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전남도립대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도립대의 구체성이 결여된 혁신방안을 비판하며 강도높은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전남도와 도립대는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신입생 입학률 100% 달성 ▲재학생 충원율 90% 달성 ▲졸업생 취업률 90% 달성 ▲성과 중심 대학으로의 체질 개선 등을 담은 혁신 방안을 이날 도의회에 보고했다.

전남도립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전국 7개 도립대 중 유일하게 탈락하는가 하면, 올해 이뤄진 고등교육기관거점지구(HiVE) 공모사업에서도 탈락하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이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라는 도의회 요구에 따른 조치다.

도립대는 최근 3년 평균 입학률이 90.1%에 불과하고, 충원률(78.7%), 취업률(64.2%) 등의 수치가 낮아 전남지역 산업체의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졸업시 취업이 어려운 학교로 인식됐다. 이에 대해 도의회를 중심으로 부실대학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고 있는 학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비등했다.

도의회는 그러나 도립대가 내놓은 혁신방안과 관련, '무엇을 하겠다' 등 구체성이 전혀 없고 그럴싸하게 포장만 한 대책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당장, 신입생 입학률 100% 달성 목표의 경우 전남도 혈세를 투입해 1학년뿐 아니라 재학생까지 전액장학금을 지급해 학비 부담이 없는 대학으로 홍보하는 형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자체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전남도에 손을 내미는 손쉬운 발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구조조정 및 재학생 충원율 90% 달성을 위해 내놓은 학생 지도비 절대평가 제도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신민호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학과 구조조정의 경우 전남지사 결재까지 받은 구조조정 규정 강화 방안이 교수회를 통해 뒤집어졌다"면서 "당시 회의록을 보면 '연금받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교수회 반발에 철회됐는데, 이게 사리사욕만 추구하는 이익집단 아니냐"며 교수회의 심의·의결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부실한 연구·교육 질 저하 논란으로 인해 '성과중심 대학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도 '외부기관 의뢰 대학역량 진단', '내·외부 교직원 복무관리 강화', '교직원 자성의 성명서 발표' 등 허울 뿐인 면피성 계획과 함께 '국립대 수준으로 보직교수 수당 현실화' 요구를 슬그머니 포함시킨 점도 비판을 받았다.

전경선(더민주·목포 5)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대학 교수들의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흠집내기식 민원성) 문자 공세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문자할 시간에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는 실천계획부터 고민하라"고 질타했다.

한편, 1998년 3월 설립된 전남도립대학은 올해까지 운영비로 국비 73억원, 전남도비 1415억원 등 1489억원을 지원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의대유치 TF 첫 회의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국립의과대학 유치 TF 단장)가 2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 목포시, 목포대, 순천시, 순천대, 광전연 등 TF내 2개 분과 20명의 팀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의과대학 유치 TF 개편에 따른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는 20년 1월 구성된 도내 의과대학 유치TF를 지난 8월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장흥·영광에 5개 기업 225억 투자유치

전남도 민선8기 투자유치 순풍…일자리 창출 견인

전남도가 ㈜포레스트, 원호테크(주), ㈜현진테크, ㈜맥스에스앤티, 농업회사법인(유)힐링푸드 등 5개 기업과 225억원 규모 서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은 민선 8기 들어 3번째로, 앞으로 4년간 '30조원 투자 유치 3만50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순항하고 있다.

투자협약에 따라 ㈜포레스트, 원호테크(주), ㈜현진테크는 장흥 바이오산단에 84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한다.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커피 부산물을 천연섬유질과 합성해 합성목재, 데크를 생산한다.

원두의 0.2%가 커피로 추출되고 99.8%가 커피박이 되는데, 커피박 새활용(업사이클링)을 통해 탄소 발생을 감축하는 등 친환경 자재를 생산해 환경보호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맥스에스앤티는 장흥바이오산단에 73억원을 투자해 실내·외 운동기구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한다.

농업회사법인(유)힐링푸드는 영광 군남면에 68억원을 투자해 효소막걸리를 생산한다. 산야초 특유의 쓴맛이 제거된 효소막걸리를 생산한다. 공장이 준공되고 본격 가동되면 새로운 남도 전통주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업유치가 마무리되면 장흥, 영광에 85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이귀동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물가상승,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어려운 여건에서 전남의 미래가치를 믿고 투자한 기업에 감사하다"며 "투자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교통공사·시설공단 설립 추진

광주시, 설립 타당성 검토…산재한 기관 통합 효율성 '기대'

광주시가 산재한 교통·시설 관련 기관을 한 데 모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사·공단 설립을 추진한다.

시는 다만 윤석열 정부가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효율성을 갖춘 통폐합형 기관신설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가칭 광주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설립 효과, 방법 등을 분석하고 있다. 교통공사 설립은 민선 7기부터 검토됐으며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추진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기관 신설이 아닌 관련 기관 통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 교통문화연수원, 교통약자 지원센터, 버스운송조합 등 교통 분야 9개 기관을 가능한 범위에서 교통공사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운영 적자,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으로 각각 연간 수백억원이 지출되는 교통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편이 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물론 기관마다 다른 인사, 조직 등을 한 곳으로 통합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대상 기관별로 공기업과 비영리법인이 있고, 법인 중에서도 사단법인·재단법인·특수법인이 섞여있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기관별 임금 격차 해소, 노조 통합, 세무회계 운영안 통일 등 '화학적 결합'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광주시는 용역 기간(8개월)이 만료되면 보고서를 검토해 추진 여부, 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민선 7기부터 추진해온 가칭 광주시설공단 설립 용역도 마무리 단계다. 이미 정부에서도 광주시설공단 관련 현장 점검 등을 마무리 한 상태다.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월드컵경기장, 염주체육관, 지하상가 등 체육회와 도시공사 등에서 관리하는 30개 시설 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이미 광산구 등 상당수 자치구에선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 분산됐던 시설을 집중 관리해 조직 효율성 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 결과, 정부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추진 여부 등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환경공단 등 4개 지방 공사·공단을 운영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수광양항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 육성"

道, 22일 순천대서 미래 발전방향 정책포럼

전남도는 22일 오후 순천대 산학협력관에서 여수광양항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신정부 해양정책과 연계한 여수광양항의 미래'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항만 전문가가 모여 여수광양항의 비전과 발전 방향, 미래 과제를 모색한다. (사)국제이네비해양경제학회 주관으로 전남도, 여수광양항만공사, 전남테크노파크가 공동 주최한다.

주요 토론 내용은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관한 연구 분석, 항만자동화를 통한 스마트 광양항 육성 방향, 광양항 탄소중립형 통합항만 서비스 구상 등이다. 세션1에서는 허남준 순천대 교수의 진행으로 항만 배후단지의 자유 무역지역 정책의 분석과 시사점,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전략을 논의한다.

세션2에서는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의 진행으로 광양항 탄소중립형 통합항만서비스 구상, 항만자동화를 통한 스마트 광양항 육성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이후 순천대 김현덕 교수의 진행으로 발표자, 관계기관 등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에 나서 다양한 해법을 논의한다.

김현철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여수광양항은 석유화학, 철강, 컨테이너 등 국가산업의 핵심기지와 복합물류 항만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2026년까지 3-2단계 자동화 부두 구축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로 여수광양항을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망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유동인구 폭발 증가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MG골프클럽

구 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中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 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中

MG금남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